



□ 사색을 위한 인용 □

에로스의 도덕적 의미

김 상 봉

플라톤은 용기 속에서 도덕적 탁월함의 가장 보편적인 바탕성을 정당하게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 정신의 강건함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참된 도덕적 성취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과 소질은 소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착함과 양순함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규정하는 도덕적 당위는 그것에 대한 외부적 상황이나 우리 속의 자연적 정념의 저항의 현실성 때문에, 마땅히 수행되어야만 할 당위로서 존립한다. 만약 도덕적 의지에 저항하는 장애물이 우리의 마음 안이나 밖의 현실 속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당위적 규정에 의해 인도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도덕적인 의지로서 발생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도덕적 당위란 의지에 대한 강제에 존립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애써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까닭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 의지와 행위가 원칙적으로 마음 안팎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 누구라도 평화로울 때에는 길을 걷다 넘어진 어린아이를 일으켜줄 정도의 여유와 호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적에게 쫓겨 후퇴하면서 상처 입은 전우를 부축하려 할 때, 우리는 심리적 저항과 현실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도덕적 당위란 그 저항을 극

복하라는, 의지에 대한 명령이다. 그러나 저항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신의 강인함이 요구된다. 그것이 곧 용기이다. 그런 한에서, 용기란 도덕적 의지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우리 마음 안팎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가? 플라톤적 시각에 따르면, 그 용기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을 용감하게 만든다. 아무리 저열한 사람이라도 사랑에 빠졌을 때에는 나면서부터 가장 용기 있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용감해지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이들의 용기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그들만이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족하다.

예를 들어 펠리아스의 딸인 알케스티스가 자기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행위이다. 어쩌면 그것은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그와 같은 숭고한 자기희생이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 지점에서 칸트와 헤어진다. 칸트는 탐닉과 의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의무에 따른 행위를 결코 탐닉과 애착의 감정으로 환원시키려 하지 않았다. 물론 플라톤 역시 탐닉과 의무를 무차별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도덕적 의지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의지이며, 그런 만큼, 도덕적 실천이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도덕적 행위는 결코 단순한 탐닉과 같은 것일 수 없다. 그것은 플라톤에게서도 역시 조화로운 탐닉이 아니라 대립되는 힘들의 상쟁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플라톤은 오직 저항의 극복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도덕적 의지와 행위의 원천을 탐닉과 사랑의 감정에서 찾는다. 의무는 사랑이나 탐닉과 같지 않다. 사랑은 달지만 의무는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의무에 따르는 행위 또한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플라톤이 보여주는 도덕적 행위의 역설이다.

《나르시스의 꿈: 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아, 미안해, 미안해!



유원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여러 번 “미안해”를 연발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교수님댁은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찾아갈 수 있었다. 들계단을 한참 올라 작은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던 작고 아담한 집이었다. 서울인데도 여름에는 시원한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으로 멋이 있는 집이었다. 우리는 교수님댁을 ‘철학자의 집’이라고 부르며, 그 단아한 아름다움을 부러워했다.

직접 여쭙어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교수님께서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한쪽 폐로만 숨을 쉬신다고 들었다. 강의실에 올라오시면, 항상 숨을 몰아쉬시면서, 우리로서는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늦으셨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매번 것처럼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히려 송구스러웠다.

1970년대 초, 우리의 대학생활은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다. 소위 운동권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계란을 던져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자문하면서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매 시간 철학의 비판정신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지성인의 침묵은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양심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시위가 불법으로 금지되고 시위의 주동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의 길을 택했던 우리 숭실대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괴로워했다. 우리가 몇 차례 시위를 시도할 때마다, 교수님들께서는 참으로 난감해하시는 것 같았다.

운동장 저 편에 모여 서서서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는 교수님들의 눈길이 우리를 더욱 난처하게 했다. 교수님들의 그 눈빛에서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교수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크림을 찢고,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였던가, 얼핏 교수님들 계신 쪽을 바라보았는데, 아, 조교수님의 눈길과 마주친 것이었다. 얼마나 송구스러웠는지! 그 와중에도 교수님들께는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게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서는 사은회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 송구스럽게 하셨다.

“아, 그 때 그 유군의 그 눈빛,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그 때는 그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이제 생각하면, 모두가 교수님의 큰 교육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사실 교수님께서서는 그 삼엄하던 시절에 채플 강단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선지자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셨다. 직접 여쭙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날 모 정보기관에 불러갔다 오셨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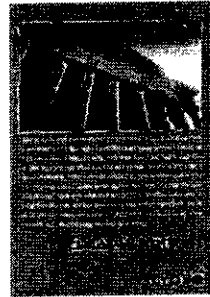
부모가 돼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더니, 이제 교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수가 강의 시간에 몇 분 늦었다고 학생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걸 보면서, “미안해, 미안해” 하시던 교수님의 음성이 가슴 저리게 밀려온다.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던 교수님의 마음을 언제라야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 (47회 · 백석예술학교 교수)

◇저서 뵙간을 축하합니다◇

김재홍 저

그리스 사유의 기원

살림지식총서 펴냄



‘영혼’의 개념과 기능, 신체와의 관계 등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이론과 지성사를 쉽게 풀어쓴 책. 저자는 초기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영혼의 개념을 살피며, 서구에서 ‘근대’가 형성되면서 형이상학적 방법론이 ‘이성’과 ‘주체’를 중시하는 인식론 철학에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과,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과 영혼과의 관계 등을 고찰했다.

미국이민목회 회고

허 중 호

미국 장로교회의 한인 목사로서 미국 이민자를 위한 30여 년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의 이민 목회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인생의 목회가 너무나도 단조롭고 짧은 것 같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미주 땅에 한 교회를 세우고 미국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임 체를 이룩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뿐입니다. 저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유학의 길을 1969년에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신학 연구와 이민 목회의 길을 열어 주시고 미국 장로교 교단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신 것인지, 다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여 년의 무거운 십자가의 멍에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지난 66년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15년간의 삶은 인생의 성장기였으며 한국전쟁 1.4후퇴 때 남한 땅으로 월남한 15년의 삶은 지금 생각하면 미국이민 목회를 위한 교육기간의 삶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차 도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5년간의 도미생활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오래 산 땅이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신대륙이라 부르는 낯선 미국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목회 은퇴 후에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남은 여생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바라기에는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에 마지막 당회장으로 수고하신 교역자가 저의 친 조부님이십니다. 저의 조부님이신 허간 목사님의 뜻을 따라 북한 땅에 소래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인생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1.4후퇴 때에 해변가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넘어 섬으로 피난하려고 모여 있었지만 더 이상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 열리지 아니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민군이 그 마을에까지 이르렀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질 때였습니다. 바로 그 날 우리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집주인 아저씨가 숨겨 놓았던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한다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 섬으로 피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피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저 먼저 아저씨와 함께 배타고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15살의 소년으로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숨어 다닐 때였습니다. 멋도 모르고 낯선 아저씨와 함께 단 들이서 배를 탄 것이 영원히 어머니와 헤어진 이별이 된 것입니다. 남한 땅 피난길은 험했습니다. 객지의 인생길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인생길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부모를 떠난 객지 인생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 신앙 체험이 미주 땅 이민 목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미국 이민 목회 중에 감격스러웠던 일 한 두 가지 회고하면 1992년도에 미국장로교회 대표들과 함께 북한 땅 방문을 마치고 난 후 특별히 한 주간 더 북한 땅에 머무르며 반세기 동안 만나 보지 못했던 그리운 형제들을 만나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너무도 감격스러웠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이 지난 1998년 1월 추운 겨울에 부족한 사람이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할 때에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북한 형제들에게 360톤의 식량을 사랑의 선물로 드릴 수 있었던 2차 북한 방문 역시 무엇보다 뜻있었던 일입니다. 360톤의 식량을 두 톤 짜리 트럭으로 운반한다고 하면 180대의 트럭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랑의 선물을 트럭에 싣고 압록강을 건너 운반했다면 아마 그 트럭의 꼬리가 보이지 않는 긴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량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산하 모든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해 9월 한국장로교 총회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모일 때에 부족한 사람이 미국장로교회 교단을 대표하여 총회 축하 인사 말씀

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는 너무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미국장로교 교단의 은퇴 혜택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지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빛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심이 함께 한 것을 고백하지 않은 수 없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삶뿐입니다. 믿음으로 바른길을 택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듯이 있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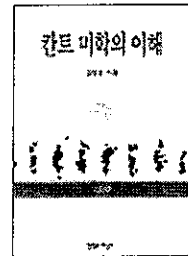
(허중호  · 32회 · 매릴랜드제일장로교회 원로목사)

◇저서 뵙간을 축하합니다◇

김광명 저

칸트 미학의 이해

철학과 현실사 펴냄



올해는 임마누엘 칸트의 사후 200주기가 되는 해이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대를 산 사람으로, 그 이전의 서유럽의 근세철학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그 이후의 발전에 새로운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김광명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칸트의 목소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칸트의 미학 이론은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는데 이르게 하고, 타자와의 공공적인 사교 공간을 마련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김교수는 보고 있다. 공통감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의 훌륭한 모델이 되며, 오늘과 같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특히 음미해 볼만한 것으로 지적한다.

학자의 혀를 소망하며



배 기 훈

세상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불만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큰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

2년 전 담당한 부서에서 설교를 할 때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빗대어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의 설교였다. 한참 설교를 하던 도중 한 아이의 눈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항상 밝고 명랑하게 뛰어놀고 웃음이 그치지 않던 적이 없던 그런 아이였다. 설교를 하며 그 아이의 눈에 고이는 물을 보며 뒤늦게 나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의 가정환경이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모와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지던 아이였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어선 아버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에서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원한의 대상인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준비한 설교를 더 이상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성급히 설교를 마치고, 계획된 순서를 마치자, 눈에 물이 고인 채 도망가듯 예배실을 뛰쳐나가는 그 아이의 손을 뛰어가서 붙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는 그의 마음을 위로할 말이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지만, 아이들은 이미 많은 고통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눈에 물이 가득 고인 채, 예배실을 뛰쳐나가던 그 아이는 계속해서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 날의 사건 이후, 아이들을 향한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길 주님

은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설교의 주 내용이 되었다. 이 사회가 점점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 이전의 통용되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사람들의 눈과 귀는 점점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가리어져 가는 것 같다. 사역의 어려움과 절망감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답없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대하여야 함을 느낀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결국 헬라철학의 개념을 사용하였듯이, 우리 아이들의 고통의 경험은 나에게도 바울의 고민을 갖게 한다. 전투적인 경쟁사회와 깨어진 가정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인가? 나에게도 주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방법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한다.(69회 · 장로회신학대학원)

◇역서 뽕간술 축하합니다◇

찰스 테일러 지음_김선옥 외 옮김

세속화와 현대 문명

철학과 현실사 펴냄



이 책은 찰스 테일러의 최근의 연구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대 서양이 세속 문명의 중심지로서 야기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세속화가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그리고 공적 삶과 종교의 분리 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는지, 나아가 계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역계몽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등을 밀도 있게 구명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은 근대와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뒤르켐의 종교사회학적 규정들을 확대 해석하여 구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에 남긴 논문들은 테일러 교수가 2002년 10에 한국에 와서 행한 4차례의 강의들과 나중에 덧붙인 서문이며, 영어 원문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김선옥 교수의 해설 논문과 윤평중 교수의 대담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덕윤리 내에서의 내러티브 연구

Stanley Hauerwas의 내러티브 윤리를 중심으로



이 지 성

“우리의 실존은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우리는 어떤 한정적인 수식어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에 매달린 채, 역사 바깥에서 마냥 구경꾼처럼 서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운명지워진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이다.”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1983. P. 21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기독교 윤리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의 주저인 *The Peaceable Kingdom*을 접하고 나서다. 그는 이 책에서 그동안 대부분의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간과한 채, 사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사실 Reinhold Niebuhr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교회 내에서 기독교적인 언어로 사회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개념, 언어들을 사용해서 논변을 제기해 나갔다. 하지만 하우어워즈의 비판처럼,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우어워스는 진정한 기독교윤리의 과제란 개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어떻게 도덕성과 연관되는가를 도와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윤리의 담론이 아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지향할 ‘무엇’이란 바로 삶을 형성하는 이야기 narrative인 성

서이다.

그래서 하우어워스는 종파주의라는 비판과 한정된 윤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성서의 이야기를 토대로 현대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표본으로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물론 굳이 이런 한정적인 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윤리적 담론들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실존적인 토대를 인정하면서, 거기서 출발하고자 하는 하우어워스의 고백과 그를 향한 윤리학계의 관심은 고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내러티브라는 개념은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덕 윤리’ 내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논문을 구성하게 되었다.

논문의 큰 틀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된 덕 윤리에서 내러티브의 역할의 중요성으로 잡았다. 도덕 행위자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자들의 성품과 그 공동체에는 내러티브가 필수적인 요소였다. 내러티브는 행위자 자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덕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오랫동안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던 덕 윤리는 중세 아퀴나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다가 근대에는 점차 배제되었다. 근대 이후 칸트식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주목받은 반면, 덕이라는 개념은 의무 윤리 체계 내에서 규칙과 의무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거나 파생적 가치를 갖는 정도로 여겨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덕을 담지하는 도덕적 행위자 보다 행위 자체가 도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 체계는 윤리의 상대주의로 귀착하게 되었고 대안으로 덕 윤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덕 윤리는 기존의 의무론과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의무론과 목적론이 지나치게 행위 중심으로 일관해서, 행위자의 동기를 간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대표적인 덕 윤리학자인 맥킨타이어는 덕 윤리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덕 윤리의 체계를 완성해 나갔다. 맥킨타이어의 관심은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목적론적인

윤리학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맥킨타이어가 주목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중요한 핵심이었던 덕 개념이다. 그래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관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의 견해를 통해서 목적론적인 관점이 유지된 덕 윤리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맥킨타이어의 이러한 시도는 덕이라는 개념을 실천(practice),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인 통일성(the narrative unity of a human life) 그리고 전통(tradition)에 의거해서 재해석하고 현실적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본 논문은 맥킨타이어가 덕 윤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실천’ ‘전통’과 더불어 사용한 ‘내러티브’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맥킨타이어가 내러티브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이라는 지적에서도 볼 수 있었다. 맥킨타이어가 지적한 것처럼 내러티브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경험이 내러티브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전통과 내러티브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통약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맥킨타이어의 대답은 한계가 있었다.

하우어워즈는 이러한 난점에 처해 있는 내러티브를 독창적으로 자신의 윤리에 접목시키고 있다. 그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덕 윤리가 맥킨타이어로 이어진 후 어떻게 하우어워즈가 그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틀을 토대로 하우어워즈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되는 개념, 즉 성품(혹은 덕), 비전, 내러티브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는 내러티브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성’의 역할을 하는 제1원리로 수용하게 된다.

하우어워즈의 내러티브 윤리는 덕의 윤리 혹은 성품의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다지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어 논의되곤 한다. 이러한 혼돈은 그의 윤리사상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즉 하우어워즈 윤리는 시간적으로 내러티브에서 시작해서 덕의 윤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품과 덕의 윤리를 내러티브 윤리로 보완한 것이다.

남은 문제는 내러티브가 과연 객관성과 보편성을 보증할 수 있는 진리인가 하는 여부이다. 맥킨타이어는 윤리를 위한 적합한 내러티브는 세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첫째, 내러티브는 진실해야 한다. 둘째, 내러티브는 어떤 ‘일반적인 형식’을 띠고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장르’에 속해 있어야 한다. 셋째, 내러티브가 복합적인 도덕들의 실체와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특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우어워즈의 내러티브

윤리는 이 조건에 합당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우어워즈 이전에도 내러티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내러티브는 덕 혹은 성품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런데 하우어워즈는 내러티브 자체를 하나의 도덕 원리로서 제안하고 덕 윤리가 처한 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 즉 덕과 내러티브를 종적인 축과 횡적인 축으로 동등하게 제시하면서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윤리학 내에서 덕 윤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덕과 동등한 위치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내러티브 윤리를 구체화시킨 하우어워즈의 한정적인 내러티브가 과연 보편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내러티브 윤리의 진실성(truthfulness)을 타진해 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2003년 8월 숭실대학교)

◇저서 뵙감을 축하합니다◇

신응철 저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철학과 현실사 펴냄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2003년

이 책은 신응철 박사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묶은 책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논문집이 아니라 문화철학과 문화비평의 두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색의 결과이다.

문화에 대한 철학적 해명, 즉 문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먼저 수행해 내고, 다양한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문화비평의 작업을 이 책에서 연이어서 수행한다. 신박사는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순서에 입각하여 균형을 잃지 않을 때에만 바람직한 문화 논의가 가능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도 문화사회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문화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한국 사회에 이 저서는 앞서 나온 《캣시리의 문화철학》과 《해석학과 문예비평》과 함께 한국의 학계에서 문화에 대한 보다 세분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역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에르네스트 르낭 지음_최명관 옮김

예수의 생애

훈복문화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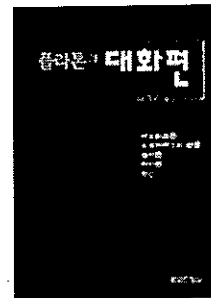
1863년 6월에 출간해 엄청난 판매량과 함께 격렬한 찬반논쟁의 중심에 섰던 작품이다. 지은이는 '예수 역시 하나의 인간이다'라는 시각으로 책을 기술했다. 한국에는 1967년 처음으로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역자가 번역 판본으로 삼은 13판의 머리말과 참고문헌 등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예수의 전기 중에서 가장 널리, 오래도록 읽히고 있는 책으로 예수가 살던 고장, 예수가 걸어갔던 곳, 쉬던 물가, 그리고 그가 살던 고장의 지리와 주변의 역사 등을 소개하며, 현대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학적, 지리학적 연구를 함께 담았다.

◇역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플라톤 지음_최명관 옮김

플라톤의 대화편

훈복문화사 펴냄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게서 일생의 전기가 되었다. 플라톤의 혼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삶의 자세에 매혹되었다. 이 책에 수록한 플라톤의 초기 작품에서, 철학은 잘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의 탐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특히 이 초기 작품들을 통하여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였다.

광고는 나의 삶

— 이상준 선배님(57회 졸업)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력: 문영식(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수료)

이지연(학부 4학년)

급하게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제 일기책이라는 회사에서 광고기획 일을 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일을 20여 년 동안이나 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78년도에 철학과에 다니셨다는 것.

4시 즈음에 약속을 하고, 선배님의 회사를 찾았다. 자그마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눈빛과, 중간 톤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맞아 주셨다.

광고와의 인연

회사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은 왜 찾아왔느냐고 웃으시며 질문을 여셨다. 소개와 인사가 대충 끝나고, 20여 년 동안이나 광고 일을 해 오셨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첫 질문이 따로 생길 수가

없었다. 어디선가 주위들은 '프로는 일로 자신을 평가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구절을 기어코 떠올려 내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하신 광고는 뭐가 있어요?

부스스하고 분방한, 그야말로 사자머리와 함께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선글라스, 자신의 삶 자체로 세상의 편견들을 반사시켜 버리는 사람. 그래서인지 TV라는 매체와도 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시대적인 숙명으로 그의 전성기가 어땠는가는 느낄 수 없지만, 나를 비롯한 80년대 이후 태생들이 '전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로 그러한데, 그런 그가 디지털 위성방송을 선전하며 "나도 달았다"며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선배가 최근 하셨다는 광고이다.

'저 사람도 광고를 하는구나...신선한데?' 나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던 것으로 기억한다. 젊은 시절 그의 노래를 좋아했던 30-40대의 반응은 이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역시나, 반응이 아



이 상 준

주 좋아서 매출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광고의 일차적인 목표가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해서 제품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라면, 단연 성공한 광고다. 요즘은 3탄 격인 '이봉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위성방송은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가장 디지털한 제품이라 할 수 있지. 근데 이것을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풀이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면서 컨셉을 잡은 거지..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광고의 기획력은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잘 포착하는 것일 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은 물론이거니와 만만찮은 내공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겼다. 철학과 광고라..

-학교 다니실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공부는 잘 안했지...성적도 바닥이었고.(웃음) 대신 동아리 활동을 좀 했는데 '어리회'라는 야학 동아리

있지? 내가 1기로 참여했었지. 당시에는 낮의 생활과 밤에 야학을 하는 생활이 괴리가 크다는 생각에 고민도 많았지. 그리고 다형문학회 활동도 잠깐 했었고.

그러고 보니 인터뷰 오기 전에 시도 쓰신다는 얘기도 듣고 왔었다.

-예전에 과학관 자리에 돌로 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아래 라일락나무가 있었어. 수업 빼먹고 그 아래 누워있길 좋아했었어. 나 찾으려면 그리로 오면 됐지. 애들이 나 수업 좀 들어오라고 고시래도 하고 그랬지 아마?(웃음) 시도 썼었는데, 우연찮게 문학상도 몇 번인가 탔어. 상금도 탔는데, 그런 돈 생기면 술값으로 다 나갔지. 주변에서는 선생님 되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면 늘 그냥 돈벌꺼라고 말하고 다녔어. 지금 생각해보면 반골 기질이 때문이지 싶어.(웃음)

-광고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당시에 돈 벌꺼라고 그러고는 다녔는데, 성적은 안 좋지, 철학과라 원서를 내도 써주는 데가 없었어. 철학 공부 좀 했다는 거 하고, 글 좀 썼다는 것 밖에는 없었지. 그러

다가 한 광고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된거야. 시험 문제라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기도 했지. 이를테면 좀 색다른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고회사에 들어 가야겠다 걱정하고 가신 건 아니었군요?

-그랬지. 그런데 가보니까 내 적성에도 맞는 거 같고 재밌었지.

무엇을 파느냐

-광고라는 것이 사람의 욕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자극적인 면이 있는데다가 반복성도 강해서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광고에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외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광고의 창의성 부분과 현혹성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광고가 더 창의적일 수 있지.

-그래도 '이런 건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 신념 같은 부분은 있지. 가끔 광고를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많이 있어. 이 회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양담배 광고를 하라 길래 그만둔 적이 있어. 지금 같으면

하겠는데 말이야.(웃음) 또 김종필 씨 광고를 하라 길래 그만둔 적도 있고... 광고는 제품이 많이 팔려야 하지. 그게 광고의 숙명이거든. 근데 어떤 것을 파느냐에 따라 광고에서 문화가 창출될 수도 있어. 예전에 일본에 한 문고판 회사의 광고가 인상적이었지. 기획은 평범했고 뭐 대단한 게 없었는데 말이야. 카피도 그랬고. 근데 그 광고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때 문고판을 들고 다니는게 한참 유행이 된 적이 있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 나름대로는 선배께서도 한때 고민이 많으셨겠구나 하고 어림짐작 해보았다. 그 우울한 회의의 늪을 지나오시면서 이제는 '나 다운 광고를 하고 싶다' 고 하신다.

상준이 라이프~!

컨셉과 함께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카피일 것이다. 전인권 특유의 목소리가 '라~이프'하며 삶을 부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것 때문에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도나도 자기 이름 뒤에 이 소리를 붙여가며 '이것이 나의 방식이다'를 웅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광고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학교 다닐 때 보다 공부는 더 하는 것 같아.

-이 끈기와 여력은 어디서 나오죠?
 -광고를 기획할 때는 타겟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하는 것이지만, 사실 진실만큼 우월한 전략이 없어. 광고 생활 20년 하면서 느낀 거지. 그리고 광고 안에는 늘 사람이 있고. 좋은 광고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
 -이 일이 약속을 잡기가 아주 애매해. 촬영이 불쑥불쑥 있어서 더 그렇지. 지난번에도 누가 홈커밍데이가 있다고 알려줘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그날도 갑자기 촬영이 생기는 바람에 못 갔어. 오늘도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것만 아니면 술이라도 한잔하면 좋은데..
 -저희도 그랬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동 문 회

1. 동문 소식

▶박상선 동문(50회·송실대 철학과 강사) 기독교학 대학원 기독교문화학과 겸임 교수로 2004년 3월 1일자로 발령되었다.

▶권순모 동문(62회) 2004년 2월 21일 이순복씨와 화촉을 밝혔다.

▶이정선 동문(68회) 2003년 12월 20일 변대성 씨와 화촉을 밝혔다.

▶임정택 동문(73회) 2003년 11월 29일 샌트로호텔 다이아몬드 웨딩홀에서 박정숙 씨와 화촉을 밝혔다.

▶권일훈 동문(67회·송실대 철학과 박사 과정) 2004년 1월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꽃동산교회(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20-11) 부목사로 부임하였다.

▶윤동성·채규식 동문(62회·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2004년 3월 2일 입학하게 되었다.

▶김혜연 동문(76회)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문과 한문학 전공 석사과정에 2004년 3월 2일 입학하게 되었다.

▶김계환 동문(76회) 성균관대학교 일

알림

2004년은 철학과 학과설립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월에 연회비를 모금하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회 장-담(15만원)
 임 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은행구좌: [예금주] 송실동문
 우리은행
 461-146308-02-001

반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석사 과정에 2004년 3월 2일 입학하게 되었다.

▶이승현 동문(76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도덕 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2004년 3월 2일 입학하게 되었다.

▶강대성 동문(76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2004년 3월 2일 입학하게 되었다.

▶김수석 동문(76회) 추계예술대학원 영상문예전공으로 2004년 3월 2일 입학하게 되었다.

정영환 회장(34회), 성금 기부

정영환 회장(34회·청운교회 담임 목사)께서 저희 동문회에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중호 동문(32회), 성금 기부

허중호 동문(32회·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원로목사)께서 저희 동문회에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 학 과

I. 교수 동정

▶김광명 교수(대학원 주임교수·철학과 학과장) 철학과현실사에서 「칸트 미학의 이해」를 출판하였다.

▶백도형 교수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1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치고 2월 23일 귀국하여 2004년 1학기에 철학과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김선욱 교수(55회) 철학과현실사에서 공역서 「세속화와 현대문명」를 출판하였다.

II. 학과 동정

▶철학과 2004학년도 제1학기 학사 편입학 1명, 일반 편입학 2명이 입학하게 되었다. 학사 편입학은 정두호씨, 일반 편입학은 이옥림, 김현래씨가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원에서는 2월 20일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정용훈 씨(73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성 단일성 논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철학과 대학원으로 2004년도 제1학기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3명이 입학하게 되었다. 박사 과정에 양진우(윤리학 전공) 그리고 석사 과정은 배기호(동양철학 전공), 김경범(윤리학 전공), 박군(윤리학 전공) 씨가 합격

했다.

▶대학원에서는 2월 2일-3일 경기도 양주군 남면 호수마을에서 MT를 가졌다. 박사과정 **박도현(윤리학 전공)** 씨가 "생명 존중의 도덕적 근거"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오지석(윤리학 전공)** 씨가 논평을 하였다. 아울러 2004년도 원우회 회장으로 **백두환(심리철학 전공)** 씨가, 총무로 **김현진(미학 전공)** 씨가 선출되었다.

주소 업데이트

▶**차현재** 동문(46회) 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 137동 101호

▶**김동진** 동문(52회)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62번지 효성아파트 101동 605호
T: 031-986-7073, 019-586-7073

▶**양승렬** 동문(56회)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1 알프스빌라 A동 101호
T: 02-439-6979, 016-9337-5373

▶**이상준** 동문(57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 청구아파트 115동 201호
T: 016-482-9395

▶**류홍선** 동문(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43-3 풍림아파트 101동 307호

▶**이상범** 동문(65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학교 입학홍보부
T: 033-760-2823

▶**김범수** 동문(대학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1 대림아파트 10동 305호

▶**김윤희** 동문(대학원)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693-9호 1층

▶**윤철현** 동문(73회) 서울시 성북구 종암1동 33-15 202호
T: 011-567-7103
E-mail : chbeast@hanmail.net

▶**이정선** 동문(68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10블럭 3롯데 302호

▶**임정택** 동문(73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4-12 301호
T: 02-521-3241

▶**박유민** 동문(74회)
T: 019-9009-9690

알림

1.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간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3호 (2004 봄)
2004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정 용 환
편집인: 김 선 옥
간 사: 문 영 식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su.ac.kr